

•—————
탁아활동의 길잡이

교사들의 소식지

•————— 준비호 1992. 5



지역 사회 탁아소 연합회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27-1호 790-6693, 792-7767

- 3 준비호에 부쳐 / 교사 활동의 길잡이로서 자리 하기를
- 4 조직 체계 /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조직 체계
- 5 이달의 인물 / 변미양 선생을 찾아서 /정 희연
- 7 기획 / 92년 탁아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1 아동 교육 /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한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할까? / 아동 교육 분과
- 13 탁아관련 신간 소개
- 14 활동 총괄 / 총선 총 평가서
- 22 교사가 쓴 동화 / “까치와 까마귀” / 김 난희
- 24 보고 / 1992년 14대 총선 활동 평가
- 25 소식과 소식
- 28 탁아 관련 기사모음
- 29 바램 / 교사용 소식지에 바란다.
- 30 짧은 얘기 긴 사연



교사 활동의 길잡이로서 자리 하기

‘우리 아이들의 날’을 맞이하는 5월에 지탁연 식구들의 소식지 준비호를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 시대 탁아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지난 80년대의 민간 비영리 탁아소의 생성과 지탁연이라는 조직체의 건설을 통하여 명실공히 탁아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자부하기에 손색이 없이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탁아 운동의 짧은 역사성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탁아법과 올바른 탁아정책의 제정 및 확립을 요구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탁아 문제의 심각성을 선전 하는 한편, 그의 해결을 위한 책임성과 대안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92년, 올 한해 지탁연의 활동 방향은 밖으로는 정부의 탁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 마련과 그속에서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 요구투쟁을 벌일것과 안으로는 지탁연 조직의 내부 역량 강화 및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탁연이 탁아 운동의 강력한 조직체로서 자기 위상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교사의 역량 강화, 대표자 회의와 지역간의 유기적인 연관, 신속한 정보공급과 기민한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교사용 소식지」를 발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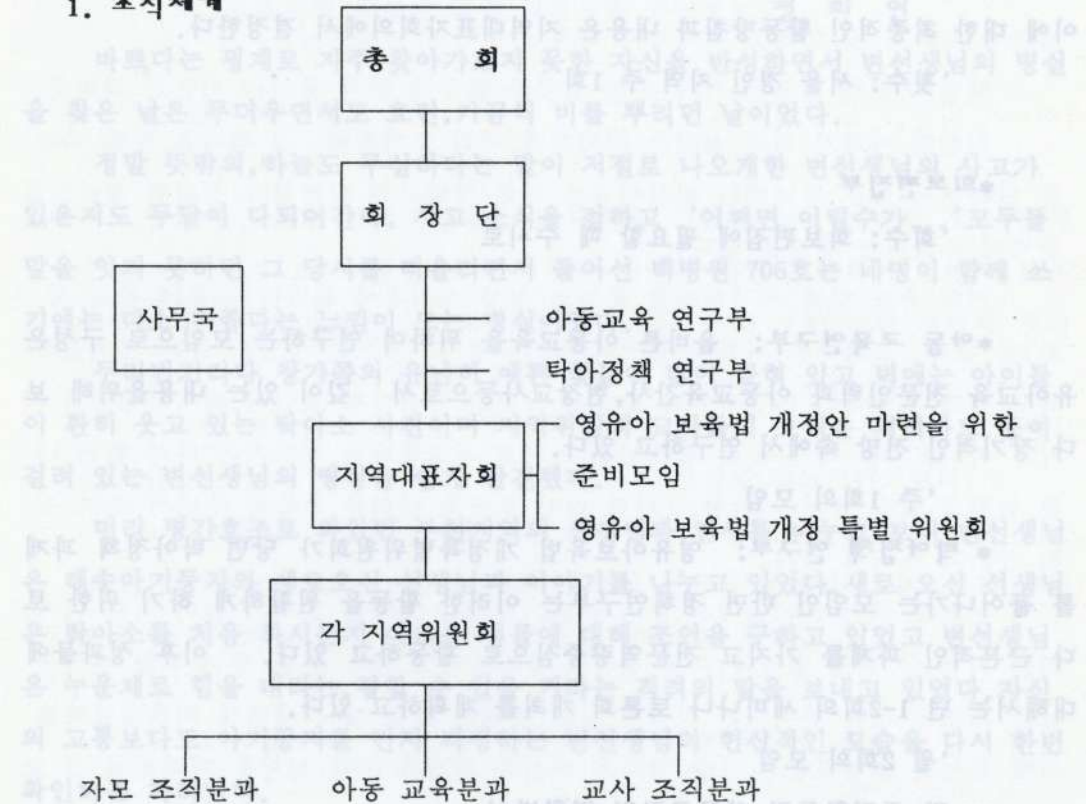
매 시기의 중점적인 활동 속에서 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월1회 발간을 목표로하는 소식지를 통해 각 지역의 교사가 지탁연의 각 구조의 활동을 이해하며, 소식지를 통한 자료 교양의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 내용, 인력면에서 부족하여 지역 교사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지탁연 회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관심, 지원 만이 있다면 이 소식지가 교사 활동에 있어서 길잡이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조직체계

1. 조직체계



2. 조직 관리 방식

1) 각 조직(혹은 위원회)활동 내용과 방식

* **아동교육분과**: 각 지역에 아동교육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지역의 아동교육분과장들이 모여서 연합의 아동교육분과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개탁아소, 지역, 연합등이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하면서 활동을 전개한다.

‘횟수: 서울,경인지역 2주1회, 지방 월 1회

* **자모조직분과**: 각지역에 자모조직분과를 구성하고 지역의 자모조직분과장들이 모여서 연합의 자모조직분과를 구성한다. 내용은 개탁아소의 자모회와 기타 조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한것으로 활동을 통해서 모아진 내용은 다시 지역위원회에서 교육과 실천으로 이어진다.

‘회수: 서울,경인지역 2주 1회

* **교사조직분과**: 주로 교사들의 사상학습을 중심으로 내용이 채워지며 구성역시 다른 분과조직과 같다.

'회수: 서울 경인지역 2주 1회

* 영유아보육법 개정 특별위원회: 각 지역위원회 1인씩 참여하여 법개정내용과 보사부의 탁아정책을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제기와 그 대안을 모색하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활동방침과 내용은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회수: 서울 경인 지역 주 1회

* 회보편집부

'회수: 회보편집에 필요할 때 수시로

* 아동 교육연구부: 올바른 아동교육을 위하여 연구하는 모임으로 구성은 유아교육 전문인력과 아동교육간사, 현장교사등으로서 깊이 있는 내용을위해 보다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 1회의 모임

* 탁아정책 연구부: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가 당면 탁아정책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임인 반면 정책연구부는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가지고 전문역량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성과물에 대해서는 년 1-2회의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월 2회의 모임

** 각 조직활동과 사무국과의 결합방식

각 분과나 위원회에 부회장이 분과장을 맡고 관련간사의 참여로 각 분과활동의 결과들이 일상적인 연합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 정책 결정단위와 집행단위에 각조직의 활동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각 분과의 분과장, 위원회장이 의결과 사업기획의 주체인 지대의에 참여하고 있다.



변미양 선생을 찾아서

정 희 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가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변선생님의 병실을 찾은 날은 무더우면서도 흐린, 가끔씩 비를 뿌리던 날이었다.

정말 뜻밖의,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한 변선생님의 사고가 있었지도 두달이 다되어간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쩌면 이럴수가...' 모두들 말을 잇지 못하던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들어선 백병원 706호는 네명이 함께 쓰기에는 다소 비좁다는 느낌이 드는 병실이었다.

두리번거리다 창가쪽의 유난히 예쁜 꽃들이 많이 꽃혀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환히 웃고 있는 탁아소 사진이며 지역위원회 교사들이 보내온 격려카드 등이 걸려 있는 변선생님의 병상을 쉽게 발견했다.

미리 병간호조로 와있던 부천지역의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보니 변선생님은 해송아기둥지의 새로오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은 탁아소를 처음 하시는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었고 변선생님은 누운채로 힘을 내라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보다도 아기둥지를 먼저 걱정하는 변선생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탁자위에 있는 병상일지(입원날 부터 매일 병간호 오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써놓은 일지)를 펴보니 그간의 변선생님의 병원에서 투병생활이 한눈에 잡히는 듯했다.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이겨내려는 의지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으나 또한 인간이기에 극도로 고통스럽던 날들의 변선생님의 모습 또한 눈에 띄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인간이 그것을 극복할 수있는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변선생님의 투병생활을 보면 그야말로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자신의 삶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해오던 일에 그만큼 애정이 없이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내가 몸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없이는 현재의 변선생님의 고통은 정말 이겨내기 힘들리라는 생각을 했다.

해송아기둥지의 선생님이 돌아가고 마주한 변선생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동그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바쁘게 어떻게 왔냐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말부터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계로 다소 피곤한 듯 보였으나 예전의 그 밝

은 모습이 오히려 위로차 찾아간 나에게 힘을 주었다면 과장일까?

그 밝은 미소 속에 또한 스쳐가는 그들이 보였다면 나의 비약일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저녁식사시간이 되었다.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는 잘 안되고 식사량이 무척 줄었다는 변선생님.

매일 비슷한 병원 식사가 또한 입맛을 돋우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되리라.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에 미리 오기전에 그 생각을 못한 자신을 탓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변선생님을 위해 맛깔스런 밑반찬과 싱싱한 샐러드를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거의 손도 안댄 저녁식사를 물리고 항상 식사후에 한다는 운동(일종의 체조)을 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 체조는 상당히 힘든 것이었는데도 끝까지 해내는 변선생님의 모습은 차라리 아름다워 보였다. 의사선생님의 지시도 아니고 자신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나를 놀라게 했다. 유난히 야윈, 유난히 하얀 오른쪽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속이 상해 눈가가 뜨거워 졌다.

본인의 이런 의지앞에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병상의 환자들과도 매우 친한 듯 모두들 변선생님의 체조에 대해 한마디씩 걱정의 말을 보내는 것을 보니 예전에 지역대표자회의때 보이던 또랑또랑한 모습, 당차게 자신의 의견과 지역 상황을 피력하던 그 모습이 겹쳐져 떠올랐다.

뜨거운 물수건 찜질로 등의 상처를 씻어내주는 일로 하루 일과가 끝나는 듯 했는데 저녁 여덟시가 넘어 학교 동기생이라는 듩직한 친구가 요플레 통을 들고 나타났다. 2~3일에 한번씩은 돌려가며 꼭 들른다는 남자동기생들을 보니 변선생님은 새로이 힘이 솟는지 농담을 한마디 한다.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선생님을 지탱시켜주는 힘은 바로 주위의 따뜻한 관심, 동지들의 격려의 소리가 아닐까.

그렇다. 우리 운동의 대의를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변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동지들의 힘인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를 퇴원의 날, 언제가 될지 모를 다시 해송아기둥지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변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다면 변선생님은 더욱 힘차게 투병생활을 해내리라는 생각을 하며 병실 문을 나섰다.

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비온 뒤의 상큼함이 밤거리를 감돌고 있었다.

92년 탁아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보육사업 수행에 따른 제안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영유아 보육법 시행 2년째인 올 92년은 그동안 아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를 계속 요구하였던 우리의 정책 대안을 직접 실행하여 정부가 보육 시설에 대한 재정보조를 그간의 국공립 시설에 한정 지원 하던 것에서 벗어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지원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파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그나마 아동 지원 시행의 긍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난 4월 29일 접수시킨 「보육사업 수행에 따른 제안서」를 중심으로 92년 보사부의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후에 있을 정부의 지원 확대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

2. 92년 정부의 탁아 지원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6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소득 현실을 고려해 볼때 매우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지원 대상의 설정이 되어야 한다.

보육 사업의 지원 방향이 이원화 됨에 따라 국공립 탁아소 만이 아니라 신고된 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중 가구당 월 평균 소득 60만원 미만 계층의 아동은 보육료의 50 %를 지원 받게 되었다.

기존의 대시설별 지원에서 대시설별, 대아동별 지원 방식의 전환이 가지는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원 정책의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이므로, 그 50 % 수준에 해당하는 60만원 미만을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르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개시되지 않아 기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자녀를 보육 시설에 위탁하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 월 평균 소득이 60만원 미만으로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

는 극 소수에 불과 한것이 현실이다.

본 회 소속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소득과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월 실시한 소득 조사 결과 참조)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경우 70-90만원대에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어 월 평균 소득 60 만원 미만 으로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25.9 %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속에 포함 되어있는 편부모 가구나 부모중 한명이 미취업인 경우 를 제외하고 순수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전체의 6.3 %에 불과 하다.

또한 월 평균 소득액은 827,427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기획원 이 제공 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이 1,158,000원 , 한국 노동 조합 총연맹이 산출한 4인가구 평균 소득 1,113,862 원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보 사부 지원 범위와 현실적인 거리감이 있는 액수 이다.

따라서 보사부 제시 가구당 ' 월 평균 소득 60만원 미만' 이라는 지원 범 위의 설정은 현실성이 결여 되었기에 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소득에 준 하는 지원 범위의 설정이 시급하다. 또한 서울,부산등 대도시와 그 이외의 지방 중소 도시간의 임금과 물가등의 격차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성 있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

2.정부의 재정 보조 대상 선정에 가구의 주거 형태를 반영 해야한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 가구의 소득 분포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주거형태의 경우 대개 비슷하게 나타났다.이용자 가구의 대부분(89.8 %) 이 전월세 이며 그나마 서울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약 816 만원, 지방의 경 우 757 만원으로 나타나 대부분 700-1,000만원 수준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그리고 빈민지역과 공단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거형태의 고려 가 반드시 필요 하다. 그동안 국공립 시설 이용자 중 추천된 경감자의 경우 지역 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1,000만원이하 또는 1,200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반영한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며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 주거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3. 아동 지원에 따른 일선 행정 기관의 혼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2년도 보육 사업 지침이 2월중 각 시,군,구로 내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 선 행정 기관의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방식의 이원화 자체를 모르고 있어 여전히 국공립 보 육 시설및 법인 시설 외엔 지원 하지 않고있는 경우도 있고, (광주시, 대전시, 군산시) 지원 계획을 밝힌 곳은 각 행정 기관에서 지원대상의 선정과 증명을 위 해 월급명세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한다.

공단 지역의 경우에는 빈민 지역보다 등록된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월급명세서로 소득을 증명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빈민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 영세 자영업, 파출부, 일용 노동직, 부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월 평 균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

조사에 의하면 월급 명세서 유무에 대해 서울의 응답자의 61.8 %가 , 지방 의 71 %가 월급명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증명 할 길이 없는 일반 저소득층에게 소득 증명의 다른 대안이 마 련 되지 않는 이상 더 많은 아동에게 국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의의가 구현 되지 못하기에 이의 보완이 시급 하다.

아동지원 대상 가구의 선정과 증명에서 지역별(시,구,동별)로 기준이 다른 바 아버지의 수입만으로 가구 소득을 보거나 사업장에서 소득 증명서를 발급 받 아 올것을 요구하거나, 지역의료 보험증으로 소득을 추산 하는 경우, 전 월세 계 약서 제출등 그 기준과 내용에 있어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이용자들의 불편 을 사고 있다.

또한 어느 지역의 경우 지원 대상을 미리 각 구별,동별로 할당하여 그 양을 채우느라 지원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4.민간 비영리 탁아소의 운영비 지원 방안이 필요 하다.

우리는 국공립 탁아소 이용자 가구의 직종및 소득과 주거 형태가 저 소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본회 소속 탁아소의 이용자의 실정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다.

국공립 탁아소와 동일한 대상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본 회 소속 탁아소를 포함한 민간비영리 탁아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회

소속 탁아소중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80 여군데시설은 정부의 운영비 보조없이 평균 53,00원 (월, 3세 이상) 의 낮은 보육료를 받으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현행 보사부 지원 방침에 의하면 아동 지원과 별도로 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만이 이에 해당 된다.

이는 “보육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기타 영유아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4조 제 1,3항)” 을 재정 보조 하도록 한 것의 근거를 미루어 볼때 현재의 부분적인 몇 몇 시설에 한해 운영비 보조가 되고 있는 것을 민간 비영리 탁아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는 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코자 보육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재정 보조는 새로운 시설을 확충, 계획 하는 것과 동시에 마련 되어야 한다. 그러나, 92년도 지원대상에서 민간 보육 시설이 제외 됨으로 해서 양질의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는 커녕 시설 유지를 위한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사부 '92-'96 보육 시설 확충 계획에 의하면 보육 대상 아동(99만명)을 보육 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90%이상을 민간 시설, 가정 보육 시설로 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해서나 보육사업이 복지 사업으로 정착되기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보더라도 모든 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조는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며, 안정된 보육 환경은 지원 대상 아동 뿐만이 아니라 보육 시설의 모든 아동에게까지 그 혜택이 갈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3.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4월 29일 접수된 보사부 제안서에 대한 답변은 14일에 받아보았다. 답변의 내용은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추후 정책 결정시 참고할 예정」이라는 간단한 대답 이었다.이에 「영보법 개특위」에서는 제안서 이후의 활동 일정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놓고 현재 각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92년 5월-12월 : 당면 과제 (지원 확대 요구, 양성 교육)을 통해 법개정을 향한 방향제시를 하며 점점 분위기를 대중적으로 띄워 나가기위해 파고를 높여 어머니대회를 기점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물고나간다.

이속에서 6월 21일 경에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를 자모 대중과 함께 만들어내고 교사 조직 선에서는 하계 수련회를 통해 이후 93년 개정 가시화 작업을 위한 전초전으로서 어머니대회에서 목표달성할것을 결의한다.

정부가 얼마전 「보육사업 확충 대책」을 공포한 이래 그 대책의 현실 가능성을 떠나 탁아시설의 확충예산에 대해 진의를 가리기 어려운 대중 선심용 탁아 공약을 유포하고있는 현 상황속에서 우리는 연합 차원의 요구와 더불어 각 지역의 조건과 특수한 상황속에서 나오는 지역별 요구 투쟁을 활발히 벌일 것을 결의 하자.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한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할까?

--- 아동교육분과 ---

범람하는 비디오 문화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놀이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비디오는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지 안보여주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지금은 비디오문화도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해도 비디오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효과를 내도록 하는 비디오 교육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그렇다고 무작정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서 그에 따른 방침을 갖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디오를 보게 되는 이유** - 아이들은 놀이공간을 빼앗기고 놀이상대마저 쉽게 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커다란 흥미거리로 비디오는 자리를 잡는다.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흥미있는 비디오를 계속 보려하고 어른(교사)들은 원칙적으로 보면 안좋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하도 조르니까 귀찮아서 보여 주게 된다.

*** 비디오 교육의 원칙** - 주위의 환경상 아이들이 탁아소에서 비디오를 보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비디오를 접하게 된다.이런 상황에서 '탁아소에서만은

4. 건강하고 사회에서 유용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

5. 평화를 지향하는 것

*** 권장할만하지 못한 비디오**

1. 폭력물 - 경쾌한 음악이 곁들인 비현실적 폭력성을 장난으로 여기며 맹신하고 모방함에 이르며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온다. 또한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 순정만화 - 전형적인 그릇된 여성상, 성관을 심어주며 문화적 배경이 주로 서구문화여서 쓸데없는 동경이나 선망을 불러일으키며 종속적 문화관을 심어줄 수 있다. 순정만화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위의 특성을 지닌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성적인 묘사가 노골적인 것

4. 상업성이 너무 짙은 것 - 아이들의 흥미에만 매달리고 교육적 측면은 무시

*** 권장할만한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 비디오 >

.이솝이야기, 공룡시대, 자연학습 다큐멘터리, 인어공주, 밤비, 옛날옛적에, 은비까비, 둘리(3편 제외), 꼭두장군, 햇살나무, 장독대, 머털도사, 호호아줌마, 스너글박사

< 텔레비전 >

KBS하나둘셋 유치원, 덩동댕 유치원, 은비까비, 특집 만화영화 중

탁아 관련 신간 소개

*** 영유아 보육법 (혜화당 값 8천원)**

*** 사회 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 아카데미 값 7천원)**

1992년 14대 총선 활동 평가서

지난 3월 26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탁연 각 지역에서는 총선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총선 국면에서 각 지역의 활동을 평가하여 올바른 활동 방향과 내용 및 방도를 마련하고, 이후에 있을 다른 선거에서 조직적 활동을 활발히 벌일것을 결의함시다. 다음 평가서는 서울 경인 지대의(4/16), 지방 지대의(4/21)에서 평가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평가차례 -

1. 총선국면의 활동을 위한 구조마련의 시기적 적합성
2. 총선 국면속에서 탁아 부문의 요구제시
3. 교사들의 정세감각의 고양 및 통일을 위하여
4. 후보 선정 과 옹립 과정의 참여 정도
5. 총선 국면속에서 대중의 정치 의식화 작업의 내용과 방도
6. 사후 작업
7. 총평 및 대안

1. 총선 국면의 활동을 위한 구조 마련의 시기적 적합성

지탁연의 총선 국면의 활동을 위한 구조 마련은 '92년 2월 6일 합숙'에서 정책 소위를 총선 대책 본부로 전화를 한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지탁연 총선 대책 본부의 결성은 총선 국면의 분위기가 뜨지 않은 상황속에서 비교적 빨리 된것이었으나, 각 지역내 총선 대책 구조마련과 활동을 벌이기에 기민한 대응 구조 마련은 아니었다.

또한, 지탁연 총선 대책 본부의 경우 각 지역의 활동 방침과 내용을 지도해내면서 중앙 차원의 대응 활동을 기획, 실행 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탁아 문제

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했으나, 지역 활동과 거의 비슷한 위상을 지닌듯하여 중앙 대응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 시켜내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총선 지침의 활용과 지역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작업과 이를 실행할 정확한 책임선이 부재하였음이 평가 되었다.

각 지역은 구조마련의 시기성이 늦은 데다 지역내 성원의 합의 없이, 또는 구조마련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책임선이 없는 상황속에서 총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어려웠다.

2. 총선 국면속에서 자기 요구의 제시 정도

총선의 국면속에서 우리는 탁아 문제의 이해와 인식 마련, 해결대안 마련등을 우리의 요구로 제시했으며, 각 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실행 되었다고 본다.

몇몇 지역에서는 후보의 공약에 탁아 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을 입안 시키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구조마련이 늦은 가운데 기민한 활동 전개는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총선의 당면 이슈가 제기되는 국면이 임박 하는 시기속에서 탁아의 자기 요구의 적극적인 제기가 어려웠는데, 총선의 앞시기에 자기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들어가면서 총선의 막바지에 이르러 당면 이슈와 결합해 들어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3. 교사들의 정세감각의 고양및 통일을 위하여

이번 총선 국면 활동 속에서 지탁연 내부 교사들의 정세감각의 고양과 통일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활동속에서 약간의 이견들이 존재하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며, 정세분석에 기초한 교사들간의 일치된 입장통일과 행동통일이 보다 더 조직적인 활동을 펼칠수 있기 때문이다.

탁아 활동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조건과 열악한 상황속에서 지역내 교사들의 정세감각의 고양및 통일을 이루기에 어려운데 따른 문제로는 자모 대중을 만나면서 다른 입장을 보여 혼란을 일으킬수있으며(구로), 자모 대중의 수준에서 매물 되어 실질적인 의식화, 조직화에 장애로 다가온다(북부).

또한, 교사들의 일치된 입장의 부재는 총선 국면의 활동속에서 탁아의 요구에 따른 정확한 활동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하기보다는 본의아니게

영동한 방향으로 활동이 전개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대전, 광주, 부산)

안산, 군산 지역등의 경우에는 지역내 교사들간의 총선 활동의 원칙에 대한 합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4. 후보의 선정과 응립과정의 참여 정도

이번 14대 총선의 경우 민자당을 비롯하여 새로운 바람을 몰고온 국민당, 민주당, 민중당, 신정당, 등과 함께 전국 연합후보, 시민 후보등이 각 지역내에서 입후보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후보들 속에서 지역에서 뽑아야할 사람들을 선정 해내는데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갖었으며, 이는 총선 국면의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무기력함을 수반하였다. 전국연합의 입장을 따르기는 하되, 활동 내용이 다르면서 지역내 혼란이 일어났다.

총선 활동속에서 각 후보선정과 응립 과정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음이 강조되었는데, 지역내 참일꾼을 뽑는데 있어서 상부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되었어야 한다.

지역내에서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으로 대책 본부에서 작성한 "후보자에게 드리는 글"을 발송 또는 방문하여 탁아문제의 선전과 정책 입안, 지지자로서 자리하는데 일정의 성과를 가졌다.

5. 총선 국면속에서 대중의 정치 의식화의 내용과 방법

이전의 탁아법 투쟁등의 활동 속에서 썩튼 반민자의식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자모 대중이 총선 국면속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정치 행위의 결정권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데 도움 주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이 전개 되었다.

월례 자모회등을 이용한 정치 강연, 유세장 공동 방문, 탁아문제 선전과 총선내 이슈 선전 활동속에서 유세장 공동 방문이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총선 국면속에서 자모의 정치 의식화를 위한 교사 차원의 자체 준비의 부족은 자모대상의 선전, 공동 실천 활동의 미비등을 낳았다.

6. 사후 작업

총선 활동이 각 단위의 교사와 자모들과 평가되는 과정속에서 활동의 단절을 극복하고, 일상 활동속에서 긍정성을 계승하여 이후에 있을 단체장 선거요구 투쟁등으로 조직화 해야한다.

각 지역내 총선 대응 활동 속에서 연계를 맺은 지역내 단체와의 연계등을 공고히 하며, 지역내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7. 총평 및 대안

총선 활동속에서 지탁연이 활동의 구조 마련과 활동 목표와 방침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구조마련의 시기적 부적절함과 정확한 책임선을 가지지 못한 상황속에서 지속적 활동 내용 마련, 점검 작업등이 미비하였다.

정치적 시기를 살린 가운데 자모 대중의 정치 의식화를 위한 활동을 벌인것은 과정에 있어서의 긍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연결 될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인해 자모 대중에 대한 무책임성을 가진다.

또한, 지탁연내 탁아 교사의 정세 감각의 고양과 통일을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됨은 물론이거니와 대중 정치 의식화를 보다 과학적이고 내용성있는 대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번 총선은 현상적으로 볼때 민자당의 패배로써 대중의 패배감을 극복하는 한편, 운동권내의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한다.

각 지역에서는 보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활동에 임할것을 요구받으며, 일상 활동속에서 이후에 있을 단체장 선거 요구투쟁 및 대통령 선거등을 준비하며 전열을 다듬어 나가야 할것이다.

이에 총선 활동을 평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1. 선거 활동의 시기적 내용

4달전 : 중앙 단위에서 정세분석과 함께 선거 활동의 방향 및 목표 논의.

지역의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 (지침, 정세분석등)

선거 활동의 일정 제시와 책임 구조마련.

3달전 : 지역내 정세분석 및 선거 활동 내용 논의. 교사간의 선거 활동에 대한

목표와 내용 공유작업. 각 단위별 선거 활동 일정 기획.

책임 구조마련 및 책임선 선정. 지역별 선거 활동의 책임자 모임

총선 활동 선전물 발간.

2달전 : 지역내 탁아 문제를 선전 하고, 해결 대안 가진 후보자 물색

탁아소내 자모회등을 통한 사전 준비작업 (강연회, 사랑방 좌담회등) 및 선전작업

1달전 : 막바지 작업, 자모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실천 활동 실행

-후보자 면담, 유세장 공동 참석, 선전전 등. 선거일의 주의사항등을 제시하면서 투표권유와 부재자 신고등 권유.

사후작업 : 선거 결과 공고 및 결과 분석 등을 자모와 같이 논의하는 자리

마련. 교사내 선거 활동 평가속에서 선거 활동에서 드러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일상활동속에서 살려낼것을 결의, 실행

중앙에서는 선거 결과와 더불어 전 지역의 책임자가 모인 가운데 평가를 하여 총괄적인 평가서 작성 및 제출.

2. 교사들의 정세감각 고양 및 통일을 위하여

이번 총선 활동을 평가하면서 교사들의 정세 감각을 고양시켜야 한다는데 공유를 하면서 정세에 대한 분석능력과 그속에서 탁아 운동의 전망등을 교사들 스스로가 해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개별 교사 모두가 주체적인 관점에서 정세를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함이 제기 되었다.

1) 중앙차원에서 교사들의 정세 감각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도로 지탁연 자체의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보다 선진적인 단체의 내용을 교사들에게 전달, 선전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서울 경인 지대의) 현실적인 역량을 인정 하지만, 지탁연이 조직체로서 성원들의 정치의식화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해내는 것은 조직력의 강화와 더불어 강제력을 행사 할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지방 지대의)이었다.

중앙 차원의 정치의식화 담당 구조로 정책 소위와, 교사 조직 분과가 설정되면서 그의 내용으로 정책 소위에서 현재 논의 진행 중인 탁아 운동론에 대한 정립과 확산 작업을 상반기중으로 일단락 짓고, 하반기에 교사들의 정세감각을 고양하는 작업을 하며, 교사 조직분과에서는 지역내 정치 학습의 조직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사들간의 입장 통일을 위한 의식적 작업을 활발

히 기획, 실행 해야 하는 것으로 제기된다.

단, 정책 소위가 선거 대책 본부로 그대로 전화됨으로 해서 일상 정책 소위 과제가 지연되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위원중 담당자가 역량있는 교사를 선발 하여 논의를 집중시키며 정책 소위는 그의 (母) 조직 단위로서 활동하는 방안이 제기 되었다.

2) 지역 차원에서는 전 교사의 일상적인 정치학습의 조직과 당면 정세에 대한 입장 정리작업이 상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의 모범사례로는 안산지역, 봉천 지역, 북부지역, 군산 지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북부지역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정파의 총선에 임하는 입장과 정책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나, 지역내 교사간의 입장 정리와 결의를 내오는데는 불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군산지역의 경우 중앙 차원의 지침등을 살펴보는 가운데 막바지 시기 약 1달 동안 집중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교사들의 정세감각을 회복, 고양 시켰다.

즉, 진보적인 신문과 보수적인 신문, 관별 신문등 약 4가지 정도 선정하여 내용별로 역할 분담을 한다. (사설, 정치, 사회면등)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면의 내용을 분석 한 결과를 상호 토론하고 이후의 정세를 어느정도는 미리 예측 한다.

탁아소가 하나로 교사간의 정세분석 작업등이 용이한 점이 잇점으로 작용한 군산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스스로가 목적의식적으로 정세를 바라 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긍정성이 있다.

3) 개별 교사차원의 경우 개별 탁아소에 매몰 되면서 정치적 감각이 둔화됨을 들어 탁아소외의 외부 단체 활동이 이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지방)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듯 하다.

3. 자모 대중의 정치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번 14대 총선 활동을 하면서 과정 전반에 걸쳐 반 민자의식을 대중에게 선전해내는데 있어서만은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보나, 누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조직 대중에 대한 무책임성으로 평가되었다. (안산 지역 평가서중) 이에 다음의 군산 지역의 자모 교육 안을 살펴 보면서 자모대중의 정치 의식화의 선명한 경로를 그려보자.

=====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한 자모 교육안. =====

1) 의의 및 목표

월금봉투, 시장 바구니, 부부싸움 (자녀교육, 부부의 도덕성)도 정치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우리는 정치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곧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000의원, 000법등에 의해 되는 것처럼 보일뿐인 현실을 인식 하고 결정권자로서의 자각과 그에 따른 자기 삶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실천하게 한다.

2) 전개 과정

1. 내가 뽑아준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

(개인적 선택과 전 국민적 선택의 차이를 대비해서 전 국민적 선택의 중요성 부각)

- 민자당의 잘잘못 따져 보기 (여당)! 경제, 민생치안, 환경, 탁아 정책, 3당 합당

- 민주당을 비롯한 재야 정치인들의 잘잘못 따져보기

2. 무엇을 어떻게 할 사람들을 선택할 것인가

- 내집 마련을 앞당겨줄 사람, 일한 만큼 벌수 있는 노동 정책을 제시 하는 사람, 이혼당한 부부를 (남북 분단)을 재 결합 시킬 사람, 내 집같은 탁아소를 많이 만들 사람, 미국 사람들이 안먹는 농산물을 사들여서 우리 농민 죽이지 않고 떼떽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 투표일에는 노동자들도 쉬게 할 사람, 노동자는 국민도 아닌가...

3.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드는데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일할 사람을 가려서 뽑아주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누구를 뽑는가 하는 일은 결국 내가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와 직결된다.

4. 입후보자별로 공약 비교

- 평생 만저보지도 못할 많은 돈을 뿌린 사람들은 그 돈 건어들이라고 할 것이 뻔하다.

<총선 대책 본부 일정 정리>

2/16 신구회장단, 정책 소위 합숙에서 정책 소위를 "총선 대책 본부"로 전화
"총선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 (자료참조)

목표 — 전체 ! 내각제 개헌 저지 위한 의석 확보

비디오를 보면 안돼'라는 원칙을 정하기보다는 좋은 비디오를 선정해서 보여주고 나쁜 비디오의 영향에 쉽게 물들지 않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 수없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선정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비디오의 악영향** - 비디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악영향은 다음과 같다. 즉,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의 저해를 가져오고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며 현란한 화면과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것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오랫동안 시청했을 경우 시력에도 이상이 오며 비디오는 가게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냥 가져와도 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여 도둑이 생길 우려가 있다.

*** 비디오의 올바른 영향** - 동화, 노래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앞에서 언어발달에 저해를 줄 수 있다고 서술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어, 상상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비디오의 주인공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대안** -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아주 안보여줄 수는 없다. 좋은 방향으로 비디오를 보여줄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아이가 직접 고르는 것은 피하고 꼭 어른과 같이 고른다.
- 항상 교사와 같이 보면서 설명과 해석을 곁들여주어 비판력을 길러준다.
- 재미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녹화하여 재시청한다.
- 탁아소에서 먼저 건전한 비디오를 보게 되면 집에서도 같은 것을 보게 된다.

1. 비디오를 보는 태도 - 아이들이 눕거나 너무 떠들면서 비디오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물건을 갖고 집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지 못하게 한다.

2. 비디오의 위치 -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으면 아이들의 시력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낮은 곳에 내려놓고 아이들이 고장내지 못하도록 문을 만든다.

3. 비디오를 보여주는 때 - 조른다고 아무때나 보여주면 안된다. 식사, 다른 교육시간과 같이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맞춰서 보여준다.

*** 좋은 비디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1. 한국적 정서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
2. 아이들의 생활을 왜곡,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3.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

— 지탁연 : 영보법 개정을 위한 의석 확보

사업 1) 지역별 연대 모임 추진, 소수지역 대안 마련.

2) 지역 실정 파악 - 대응 시작

3) 중앙 - 정책 소위를 총선 대책위로 전화

여연 총선 선전 팀에 1인 참여

1)교사용 지침서 2)후보에게 드리는 글 3)자모교육안

4)홍보물 (내부, 여연) 마련 하기로함.

4)목표! 탁아 문제의 현황을 알린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2/11 정책 소위-자료검토 (예정)

지침 검토- 내용 보완, 방침은 전국 연합을 따르기로 합의됨.

2/13 후보자료, 자모자료-방향성 논의

2/17 후보에게 드리는 글 초안 검토

2/27 지대의-총선 지침

2/말 자모 교육안 완성및 배포, 언론작업

3/24 투표

4/2.16 총선 평가 (지대의)



까치와 까마귀

(1)

김난희 (전주 일터 아가들의 집 교사)

다음 글은 지난 91년 서울 범민족 대회 전국 청년 추진 본부에서
주최한 통일 문학전에서 통일상을 받은 글로 통일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기에 이번호부터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벌써 몇달째 비가 내려 온세상은 물난리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붉은 흙탕물이 도랑을 휩쓸고, 마을들도 물 속에 잠겼습니다. 앞동네 꽃길 마을의 빨간 꽃잎을 자랑하는 채송화도, 보라빛 도라지꽃도, 풀잎속에 가리워 피는 수줍은 나팔꽃도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아요.

꿀벌은 꽃속에서 꿀을 따지 못하고, 새들은 과일이나 곡식이 열지 않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사과 나무는 비가 계속 오면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벼 이삭 또한 햇빛을 보지 못한채 물에 떠내려갔으니까요. 뿐만이 아니에요. 옆 강둑마을 푸집에네 작은 병아리, 어미닭이 빗물에 떠내려갔고 돼지며 초가 지붕의 짚더미, 서까래 등이 모두 물에 둥둥 흘러갑니다.

강둑마을 큰부리까마귀는 '정말 이만저만한 물난리가 아닌 걸' 중얼거리면서 '더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꽃길마을에서 노란때까치가 찾아왔습니다.

"노란때까치야, 여기까지 웬 일이야?"

큰부리까마귀가 갑자기 찾아온 노란때까치를 보면서 궁금해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꽃길마을도 홍수 때문에 다들 죽을 지경이야. 먹을 것이라곤 물

에 다 떠내려 가고 햇볕도 제대로 비치지 않아 얼마나 답답 한지 몰라. 너희 강둑 마을도 물난리가 심하구나. 큰부리까마귀야 !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대나무숲 까치들도 모아서 이 물난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보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잖아 ?"

노란때까치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해요.

"그래. 그것이 좋겠다. 나도 조금 전에 너같이 생각했어. 다음에 만날 때까지 비가 왜 이렇게 오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한번 알아볼게."

큰부리까마귀가 무엇인가를 결정한 듯 눈에 힘을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럼다음에 보자. 만날 때까지 건강해." "너도."

등과 어깨가 활색을 띤, 잿빛 갈색의 노란때까치가 '건강해' 하면서 돌아 가는 모습이 큰부리까마귀는 무척 측은해 보였어요. 지난 해만 해도 날아가는 모습에는 힘이 있었고, 한번의 날개짓으로 자기몸의 세배는 거뜰히 날아올랐는데 지금은 조금밖에 날지 못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튼튼하던 어깨마저 살이 빠져 있었어요.

'꽃길마을도 딱정벌레, 메뚜기, 매미, 파리, 먹을 것이라곤 거의 없겠구나.' 심하게 굶은 부리로 큰부리까마귀는 혀를 쫓쫓 찼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걸까?'

큰부리까마귀는 마침내 비가 오는 하늘로 올라가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올라가 보는 거야'

큰부리까마귀는 먹이를 먹지못해 배가고파서 힘이 없었지만 다음에 모두 함께 모일 때까지는 이 난리의 이유를 알아야 할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날아가고있는데 저만치에서 췌기꼬리영감님까치께서 보입니다. 야위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어델 가는 게야?" 췌기꼬리가 유난히 길어 보입니다.

"비가 왜 계속 오는 건지 하늘로 가서 알아 보려구요."

"그래? 대견하구먼. 아마도 이건 눈물일게야, 눈물."

"아니 췌기꼬리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눈물이라니요?"

큰부리까마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다녀와 보면 알게 될 걸세. 잘 다녀오게나."

(다음호에 계속)

3-5월의 주요 활동

〈설문조사〉

지난 3월에는 지탁연 각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탁아소, 교사 설문 조사와 지역위 설문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지탁연 소속 탁아소를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는 조사가 실시 되었다. 각 탁아소와 지역위 조사의 경우 현재까지 약 1/3가량이 수거되지 않아 분석을 하지 못하고있으며, 교사 설문조사의 경우도 조사대상의 많은 수가 결하지않아 현재 교사조직분과에서 분석 작업을 중단 하고있는 실정이다.

〈제 7기 교육 강좌 열려〉

지난 3월 23일부터 제7기 교육강좌가 시작 되었다. 이번 교육강좌에 지역교사 23명, 일반 4명이 수강신청을 하였고, 매 주 월, 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아동교육을 비롯하여 탁아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7월 3일까지 진행 된다.

〈탁아운동론 논의 활발- 정책 소위를 중심으로〉

90년대의 변화된 상황속에서 각 지역은 탁아 운동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있다. 이에 정책 소위를 중심으로 지난 3월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탁아문제 발생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운동론의 전략과 전술및 방도에 이르는 탁아 운동론의 정립작업을 하고있다. 일차적인 논의가 마무리되는 5월내에 각 지역에서 이를 토대로 한 탁아 운동에 대한 논의가 실천적인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지탁연 간부의 역할과 자세를 보다 충실히 - 중간 간부대회 열려〉

지난 3월 29일에 지탁연 각 지역의 대표자, 분과장, 집 대표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대회가 열렸다. 인간 관계 훈련과 간부의 역할과 자세의 내용을 가지면서 간부의 지위와 역할 속에서 지탁연 강화에 어떻게 복무해들어갈것인가 하는 고민은 조별 토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92년 활동 방향및 보사부 보육사업 지침을 분석 하는 가운데 활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사부에 제안서 제출〉

실시한 지탁연 소속 탁아소 이용자 가구의 소득분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보육사업 수행

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29일에 접수시켰다.

보사부의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5월15일에 받아보았으나 의례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3월 23일에는 서울시에 보육사업 수행에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를 방문하여 우리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5월 어린이날 기념 행사 풍성〉

작년의 경우 서울 경인지역이 한데 모여 연대 단체와 어린이날 기념 행사 잔치를 하였던데 반해, 올해는 각 지역별, 탁아소별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연합 차원에서는 5월5일 당일에 서울 교육대에서 있었던 타단체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 하였다.

행사장에서 변미양 선생 돕기 수익 사업이 있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 활동 일정에 대한 논의 활발〉

지난 5월 7일 서울 경인 지대의에서는 4월 28일 보사부 제안서 이후 6월중순의 대중적 집회의 일정을 잡는 가운데 지원 확대 요구투쟁을 보다 활발히 벌일것을 결의하였다.

소식

연합회 소식

- 3/7 3.8여성대회 (여연 주최, 여의도 여성 백인회관)참가
- 3/23 소득 조사 근거로한 보육사업 수행에따른 제안서 서울시 제출
- 4/11 직장 탁아 설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
- 4/16 “ 현시기 남북 관계와 남한 정부및 재야의 통일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 운동 차원에서본 통일 운동에 대한 고찰과 전망 ”통일 문제 세미나 (여연 주최, 숭실대) 참가
- 4/20 “경제 활동을 통한 비공식 부문 여성 조직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여연 주최, 숭실대) 참가
- 4/28 “빈민 여성 선교 교육원 참가건 ”논의 참여 (서공연, 기여민, 부스리기 선교회, 지탁연)

5/12 직장 탁아 설치 준비 모임
 5/13 비공식 부문 여성 조직화 방안 논의 모임
 5/14-17 여성 단체 연합 대표자회의 (제주도)

서울 경인 지역

<북부지역> 4/12 동근나라 미아1동으로 이전
 5/3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5/10 나눔의 집 전세금 마련 일일차집
 <동부지역> 5/8 공동 임원 교육
 (자모회진행, 임원의 역할등)
 <구로지역> 3/8 3.8여성제 지탁연 서울지역위원회로 참여
 4/12 튼튼이 놀이방 여성 복지회관으로 이전
 4/19 꾸러기동산 바자회
 4/28 월례교육 (탁아운동론)
 5/9 튼튼이 놀이방 시설 신축비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4월말-6월초 격주4회로 신진 교사 교육 실시
 1) 지탁연, 구로지역위, 각 탁아소, 지역 연관 단체 소개
 2) 아동교육 3) 기혼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여성 운동
 4) 선배와의 대화
 <안산> 4/17 안산시 보육위에 교사, 자모 대표 참여
 4/23 공동 임원회 (어린이날 행사, 지역위 5월 계획, 지원금
 신청에 따른 대응책마련, 회의정례화-격월 세제 금)
 4/29 시청 향의 방문 (소득직접 확인서 거부에 대해 수락,
 월급 명세서 대체,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소득 결정)
 5/3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5/13-15 탁아소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
 <부천> 3/8 3.8 여성 노동자 전진 대회 참여
 4/20 시설 지원을 위한 모임 (부탁위, 부천 여노회, 시의원)
 4/23 공동 임원 자모교육 (자모회의 필요성과 임원의 역할,
 회의 진행법)
 4/25 튼튼이 아가방 자립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5/12 어린이날 기념 지역 공동 소풍(어린이 대공원)
 <인천> 3/29 세쌍둥이 추모제
 4/18 공동 임원회의 (어린이날 행사 준비)
 4/26 엄마방 일일주점및 물품 바자회
 5/5 어린이날 가족 체육대회
 5/9 새싹들의방 일일주점
 <수원> 5/4 어린이날 기념 공동 견학 (계몽 문화 센터)

지방 지역

<대전> 4/12 샘골 어린이집 세돌 잔치및 탁아기금 마련 하루차집
 <대구> 4/11-12 대탁 교사 수련회
 <부산> 4/12 출산할 교사(강숙진, 박선애) 송별회겸 단합 대회
 <광주> 3/24 광탁연 교사 친목도모를 위한 등반대회
 4/16 보육 시설 관계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
 (보육시설 조례의 필요성, 초안 검토, 제정 지원 현황)
 5/9 탁아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축하 합니다.

결혼! 동부지역 개나리 동산 신주희 (5/3), 안산지역 꿈나무 동산 김정 (5/5) 선생님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합니다. 두분은 각각 인천과 대구지역에 신방을 차리시고 곧 탁아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행복하세요!!

* 환영 합니다.

오민기 선생님! 올해 숙명여대를 졸업하시고 견습 기간을 거쳐 5월 부터 북부지역 동근나라 어린이방 교사로 활동하십니다.

조연주선생님 ! 연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의료 관련 단체 일을 하

시다 지난 1월부터 동부지역 개나리 동산 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두분 모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에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타아 관련 기사 모음

*2/12 매일 경제 신문

: “노.사.정 대토론회” 중에서 타아시설 확대 2천억 투입-노대통령

*2/13 조선 일보

: 여성 인력 적극 고용위해 타아소등 대폭 확충 - 노대통령 노사관계 회의 지시

*3/14 새건강 신문

: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주먹 구구

* 3/31 조선 일보

: 인천 용현동 세쌍둥이 타아소 소개

*3/31 한겨레 신문

: 타아교사의 가슴 아픈 변고- 변미양 선생 사건

*4/4 한겨레 신문

: 공공기관 타아 시설 추진 바람 - 학교와 중구청 타아 시설 추진

*4/24 연합 통신 제공

: 보사부 제안서 내용 상세히 소개

*4/22 서울 신문, 한겨레신문, 조선 일보, 동아일보

: 보육시설 2만 9천곳 늘린다.- 94년까지의 『보육시설 확충 대책』
일천 2백 7억 예산 책정, 놀이방 운영비 지원예정, 직장 타아설치 세
금 공제 확대

*5/1 한겨레

: 보사부 제안서 내용 소개

*5/5 한겨레

: 5월 5일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 한마당 소개

바람

교사용 소식지에 바란다.

소식지에 바라는 안산 지역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편집부)

현재적 고민과 타아 운동의 진로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해내는 소식지
이길

조직은 그 조직이 가야할길- 무엇을 향하여,누구와 함께 어떤길을 걸어
서 갈수있는가,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를 조직원 모두에게 제시
해줄수 있어야 한다.즉, 타아 운동의 진로에 대한 전망과 현재적 고민이 날
날이 밝혀지고 온 조직원이 이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제는 지역 대표자회의 (이하 지대의) 와 지역대표,지역내
대표체계가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할 역할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교사용 소식지의 창간은,그동안 부실했던 지대의의
의 조직 사업 확산의 역할에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그 역할의 보조,강화를
위한 적극적 보완책으로 기능하게 될것으로 본다.

안산 지역 대표로서 중앙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총체적이면서도 세부적
인 사항까지 알려내고,지역에 대하여는 전 조직의 상황과 조직 방침 결정 과
정등을 세밀히 설명해 내고 조직원의 결의를 높여내야 할 나의 임무에 대하
여 부족함을 많이 보여 왔다. 앞으로 지역 대표들의 개인적 노력과 함께 그
역할 수행을 가능케 하는 조건과 구조의 강화를 충실히 수행 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것이다. 나와 우리의 노력에 동반자가 되어줄 소식지
의 창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 그리고 소식지에서 매번 짚어줄 조직의
방침에 우리 지역이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내는것-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소
식지를 만들어 낼 편집진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되리라 본다.

- 안산 지역위원회 대표 진달래 동산 교사 이은애 -

모범 활동 사례와 탁아 활동에서 요구 되는 자세의 심도깊은 계제가

지탁연에서 교사용 지침서가 발간 된다고 하니 새삼 감회가 새롭다.

푸르른 5월 ! 우리의 조직 대오 또한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각자가 활동가로서의 신념과 의지를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각 지역에서의 모범 활동 사례와 탁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자세 등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하고 심도 깊게 게재 되었으며 한다.

우리의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애쓰고 계신 활동가 (교사)들께 힘내라는 인사와 소식지 준비팀에게 화이팅을 외쳐본다.

-먼 안산에서 꿈나무 교사 서현경-

전국적인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해내어야

지탁연에 소속 되어 있는 탁아소의 각 교사들이 느끼는 "조직"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조직이 개인에게 요구 하는 것이나 개인이 조직에게 요구 하는 것도 여러가지 일것이다. 이러한 각양 각색의 요구가 조직이라는 하나의 틀속에서 묶이내고 활동에서 부치는 난관을 극복하는 일이나 잘 된일을 나눠 갖는 일도 바로 조직이라는 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신속하고,가장 절박한 우리의 문제,우리의 기쁨으로 다가 설 수있는 확실한 통로가 교사용 소식지이기를 바란다.

-- 진달래 동산 교사 임남희--

짧은 얘기 긴 사연

1.교사용 소식지의 이름을 찾아줍시다.

교사용 소식지의 이름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은 사무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2.교사용 소식지에 담을 각 지역의 소식을 전달해줄 "지역 통신원"을 지원 해주십시오.

3.교사용 소식지에는 교사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지탁연 활동에 대한 제언이나 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기쁨을 담은글,탁아소에서 일어난 자그마한 사건등을 투고해 주십시오.

4.소식지에 실을 사진을 구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주요 활동을 나타내는 사진,좋은 내용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십시오.매달 소식지 표지 사진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교사용 소식지 준비호

발행일: 1992년 5월 25일

발행인: 최 현 숙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서울 용산구 남영동 127-1

